

# 어린이를 위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몇 가지 문제점

박창해\*

## 0. 들어가는 말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이 때에, 대한 성서 공회가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성경 번역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은, 어린이를 가정에 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개신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 한 세기가 지났고, 유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도, 한 세기가 지났다. 해방 이후에, 새로운 기독교 교육 이론으로, 유년 주일학교를 교회 학교로 전환 개편하고, 어린이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오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을 가지게 하였다. 그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지마는,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늘 쓰는 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른 성경-본, 개역 성경 말씀을 어린이가 알아 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여 주든지, 교사가 성경 구절을 어린이 말로 고쳐서, 등사하여 준 글을 읽는 데도 있었다.

그런 시기가 지나간 이 즈음에는, 쏟아져 나온 성경 교재는 읽을 수 있지만, 성경책을 직접 읽는 어린이는 그리 많지 못하다. 그런데, 더러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기는 읽어도,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린이가 꽤 많다. 그것은, 어린이 말로 번역한 성경책이 없음에서다. 어린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지마는, 어린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은 아직도 없다.

우리는 개신교 100년의 역사는 말하면서도, 아직도 어린이에게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였었다. 우리의

---

\* 연세대학교 교수 역임, 국어학.

어린이 신도들은 어린이 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대한 성서 공회가 어린이 성경을 ‘어린이 말로 번역하려고 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는 일도 된다,고 확신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 발전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줄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린이가 읽을 성경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 몇 가지 문제를 여기에 적어서 함께 생각하여 보려고 한다.

## 1. 어린이 성경도 원전에서 우리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읽을 성경도 반드시 원전에서 번역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서 쓴 책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에서다. 어린이도 기도하고서, 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읽는 동안에, 새로운 영감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서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부언할 것이 있다.

### 1.1. 성경 말씀을 번안하여서 ‘성경 이야기’로 만들지 말자.

어린이 말로 된 성경은, 성경 말씀을 번안하거나 각색하여서, ‘성경 이야기’로 꾸며낸 이야기 책과는 다르다. 아동 문학가나, 종교 지도자-교회학교 교사도 포함함, 어린이들이 읽어서, 재미를 보게 한다든가, 성경 말씀에 관한 내용을 지식으로 얻게 하는 목적으로 저술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쓰는 교재로 하여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쉬운 말로 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육의 지적 효과를 주려고 함에서는, 성공을 거두는 지는 모르나, 그 것을 성경 말씀으로 믿게 하거나, 그것을 성경의 요절로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성경(줄여서, 어린이 성경)은 원전에서 직접으로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여서, 어린이 스스로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 1.2. 어린이를 위한 성경은 현대 한국어로서, 어린이가 쓰는 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어린이가 읽을 성경은, 현대어로서, 어린이들이 일반 가정과 사회에서 쓰는 말로 번역하여야 하고, 어린이의 언어 능력이나 지적 발전에 부합하는 정도의 말로 번역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성경 원전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함에 쓸 기본문의 **문형**을 결정하는 문제와, 그 성경이 지니고 있어야 할 여러 가지 **문체**를 결정하는 문제와, 성경 말씀을 번역할 때에 사용하여야 할 **기본 어휘**를 선정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수적으로 생각하여 볼 문제도 있다. 곧,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에,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 이론과 언어 교육학 이론을 도입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의 **문 구조 유형**-문장 유형, 예언자들이 백성에게 선포하는 말의 유형,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일반 대중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의 표현 유형, 사도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한 말의 문 구조 유형, 사도 바울이 여러 지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의 문체**를 결정하는 일, 그리고, 계시문의 문체 등을 결정하는 일들이 실제의 문제로 있다. 곧, 말의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문체**를 결정하는 일이 그대로 우리 앞에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서술문 구조를 써서, 진리를 서술할 때에 조심하여야 할 일은, **능동문과 수동문 구조를 혼용하는 일**이다. 그런 혼용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능동문과 수동문을 혼용하면, 어린이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을 안겨 주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어린이의 사고 기능 발전에 지장을 준다. 이런 문제는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 이런 문제에 관하여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 2. 번역인의 자질 문제

번역인의 언어학적인 자질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논란의 비중이 크다. 그것은,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인은 원전 문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한국어 문법도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다가, 문학적인 소양을 쌓은 분이라면, 그 이상은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만일, 그 두 언어의 문법 구조를 다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면, 시간을 두

고서, 번역할 대상 언어 구조와 한국어 구조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대조 문법(對照文法) contrastive grammar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이론을 미리 연구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원전에 있는 문 구조가 한국어 문 구조에는 없거나 그 반대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이 다르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아내어야 하기로서다.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이나 족속들이 지니고 있는 생활 문화와 전통 문화가 우리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며, 그 차이는 언어 구조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함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 차이의 근본은, 민족들이나 족속들이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고 구조 thought structure의 차이에서 근원하는 것이므로, 번역인은 그런 사고 구조 연구에 들어서어 있어야 한다.<sup>1)</sup>

그리고 또, 번역인은 그런 다른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함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다른 점들이 언어 구조로 나타기로서다.

어린이 성경의 번역문은 번역 대상 언어 구조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할 수 있는 대로 번역문 구조에 그대로 옮겨 줄 수 있도록 번역하여 놓아야, 번역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대상 언어 구조가 지니고 있는 뉘앙스마저를 번역문 구조에 옮겨 놓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금상첨화일 것이다.

### 3. 기본 문형과 문체와 기본 어휘

어린이를 위한 성경을 번역하려면, 미리 살펴 보아야 할 기본적인 문제는 1) 번역문에 쓸 기본문 구조 유형-줄여서, 기본 문형을 확정하는 문제와, 2) 원문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체를 번역문에 옮겨 올 수 있는 방법과, 3) 번역문에 쓸 기본 어휘의 선정 문제, 등이다. 그리고, 특히, 인칭 대명사의 사용 방식은, 시종 일관한 체계 위에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풀고서, 번역을 시작하여야만, 번역 시간을 덜 수 있고, 번역한 어린이 성경은 어린이의 신앙 생활과 직결시킬 수 있다.

#### 3.1. 기본 문형- 기본 문 구조의 유형

어린이 성경에서 쓰는 말과 글의 기본문 구조의 유형-줄여서, 기본 문형은, 물론,

---

1) Chang-Hai Park (1974), Thought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 Korean Studies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현대의 어린이들이 쓰는 말에서 정확하게 찾아낸 것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문법에 관한 언어 지식을 지니고 있지만, 보통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sup>2)</sup> 그러하지만, 언어학자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지닌 언어 지식을 의식할 수 있게 하려고 하여서, 그 지식을 어법 규칙으로 형식화하는 일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로 사람의 말은 사고할 때로부터, 그 마음에 기저문 구조로 지니며, 거기에서 생성한 문 구조를 전환 과정을 거쳐서, 표출문 구조로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 구조는  $□ \rightarrow □\text{주} \text{다}$ (문 구조는 명사절과 동사절로 이룬다.)다. 이것이 기본문 구조다. 이를 기본 문형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두 문절 사이에는, 상대적인 상관성-줄여서, 상관성이 내재하여 있다. 이 상관성을 바탕으로 하여서, 언어학자는 어법 규칙을 세운다.

언어 교육자들은, 그런 어법 규칙을 지각할 수 있도록 적어 놓은 것을, 말의 기본 문형基本句型이라고 한다.

전통 문법 학자나, 응용 언어학자들도 기본문 유형 sentence patterns을 거의 같은 뜻으로 다룬다. 그런데, 구조 언어학자라든가, 현대 언어학자가 쓰는 말에는, 핵문 kernel sentence, nuclear sentence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기본문 구조 유형들을 비교하여서 다져 보면, 그 문 구조의 유형을 짜는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

구조 문법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환원한 평서-능동-타동문을 일러서 핵문이라고 하고, 생성 문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능동-평서-긍정문으로서, 명사구 noun phrase, NP와 동사구 verb phrase, VP로 구성된 표출문 구조를 핵문이라고 한다.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도, 기본 문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한국어로 구성된 문 구조에서, 가장 <짧은 문 구조>는 아래의 (1가)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예문 구조일 것이다. 이 문 구조를 구성소-의미의 최소 단위, 곧, 형태소-단위로 분석하여 보면,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볼 수 있다. 그 문 구조를 세 가지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본다.

(1) 가. 예문 구조:            바울이 온다.

2) Smith, Neil and Wilson, Deirdre. (1979), *Modern Linguistics -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22.

나a. 문법 범주로 쓴 문 구조:

$\square \rightarrow \square\text{ㅅ} \text{ㅅ}$   $\square$ 은 문 구조,  $\square\text{ㅅ}$ 은 명사절,  $\text{ㅅ}$ 은 동사절.

나b. 문 구조의 구성 방식:

문 구조의 구성 공식    공식의 해례 - 문 구조의 구성 방식-

1.  $\square \rightarrow \square\text{ㅅ} \text{ㅅ}$     문  $\rightarrow$  명사절 + 동사절
2.  $\square\text{ㅅ} \rightarrow \square\text{ㅅ}\text{ㅅ}$     명사절  $\rightarrow$  어간 명사 + 위치 접미사
3.  $\text{ㅅ} \rightarrow \text{ㅅ}\text{ㅅ}\text{n}$     동사절  $\rightarrow$  어간 동사 + 접미사<sub>n</sub>  
 $\square$ 은 명사,  $\text{ㅅ}$ 은 동사,  $\text{ㅅ}$ 은 접미사.

- $\text{ㅅ}$ 의 어간 동사  $\text{ㅅ}$ 가 그 앞에 피사어절  $\square\text{ㅅ}$ 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text{ㅅ}$ 는 자동사  $\text{ㅅ}\text{ㅅ}$ 임.
- 아래에서는 위에서 보인 단위 기호에 형태소를 { } 안에 대입<sub>대입</sub>함.

4.  $\square \rightarrow \{\text{바울}\}$     명사절의 어간 명사 {바울}을 대입.
5.  $\text{ㅅ}\text{ㅅ} \rightarrow \{-\text{이}\}$     그 어간에 위치 접미사 {-이}를 대입.
6.  $\text{ㅅ} \rightarrow \{\text{오-}\}$     동사절의 어간으로 자동사 {오-}를 대입.
7.  $\text{ㅅ}\text{n} \rightarrow \{-\text{ㄴ}\}\{-\text{다}\}$     그 어간에 접미사열 {-ㄴ}{-다}를 대입.

다. 문 구조 종류

자동문- 바울이 온다.    동사의 통어 소성인 자동성과 타동성이문 구조의 유형을 결정함. 자동문, 타동문, 등.

라. 통어 기능

평서문- 주어절 서술어절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 관계성이 표출문 구조에서는 그 구성소들의 통어 기능으로 나타남.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은 그 마음에, 문 구조를 이를 어법 지식을 어법 규칙으로 담고 있다. 심중에 있는 그런 어법 규칙을 기호화하여서 적어 보이면, (1나a)에 적은 바와 같은 문 구조의 구성 공식으로 적을 수 있다. 마치 수학에서,  $x y = z$  로 적듯이, ‘바울이 온다.’를 기저문 구조 구성 규칙을 따른 공식으로 적으면,  $\square \rightarrow \square\text{ㅅ} \text{ㅅ}$  (문  $\rightarrow$  명사절 x 동사절)이다. 이 기저문 구조 구성 공식을 풀어서 말하면, ‘문 구조는 명사절과 동사절과의 상관 배열<sup>3)</sup>로 이룬다.’다. 그런 공식

3) 상관 배열이라고 함은, 문 구조를 이룬 명사절과 동사절이 그 문 구조 안에서 서로 상대 문절에 대하여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띠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랍.

을 이룬 구성소 기호에다가, 발화인들이 다 그러하듯이, 필자가 임의로, 문 구조를 이룬 형태소-어휘를 대입(代入)하여 보면, (1가)의 예문 ‘바울이 온다.’를 얻을 수 있다.

(1가)의 ‘바울이 온다.’를 문 구조 구성 방식으로 살펴 보려고 하면, 이를 분석하여 보는 척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어법 범주(語法 範疇 grammatical category)다.

어법 범주라고 함은,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는 통어법으로 구성된 문 구조에서 일정한 위치에 나타나며-분포하며, 그 환경으로 있는 다른 구성소(들)과 특징적인 상관성을 지니고서, 일정한 통어 기능을 하는 구성소류 constituent class를 말한다. 이들을 기호화하여서 적으면,  $\alpha$ ,  $\alpha\beta$ ,  $\beta\alpha$ ,  $\alpha$ ,  $\beta$ ,  $\alpha$ ,  $\beta$ , 등이다.<sup>4)</sup>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문 구조를 살펴 볼 때에는, 언제나, 그렇게 기호화한 문 구조를 놓고서, 거기에서,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문 구조를 이루는 구성 유형을 다져 보면서, 그 문 구조의 하위 단위들을 살펴 보려고 한다.

(1나b1)에는, (1가)에 예로 든 문 구조를 문 구조 구성 공식으로 적고서, 그 문 구조를 이룬 큰 단위-上位(上位) 범주(範疇)의 구성소-문절 구조에서 작은 단위-下位(下位) 범주(範疇)의 구성소-형태소로 분석하여 내려 가면서, 그 기본문 구조를 어떤 구성소로 이루었는가, 함을 찾아서 살펴 보고, 그 찾은 단위마다를, 그 문 구조 구성 공식에서 쓰는 범주 기호-範疇記號 category symbol로 적는다.

그렇게 적어 놓고서, 그 문 구조를 구성하는 방식을, (1나b1)에서와 같이, 살펴 보면, 하나의 문 구조는, 문절 둘의 배열(配列 tactics)로 이루어짐을 본다. 이를 문 구조의 구성 규칙으로 말하면, ‘문 구조  $\alpha$ 는 명사절  $\alpha\beta$ 와 동사절  $\beta\alpha$ 의 상관 배열(相關 配列 correlative tactics)로 이룬다.  $\rightarrow$ ’이다. 이 말을 기호화하여서, 문 구조의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alpha \rightarrow \alpha\beta \beta\alpha$ 이다. 그것은 곧, [문  $\rightarrow$  명사절 x 동사절]이다.<sup>5)</sup> 이런 문 구조의 구성 공식을 문 구조의 기호열(記號列 str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1나b2)에서, 명사절  $\alpha\beta$ 의 구성은 그 문절에 분포한 어간 명사 noun stem  $\alpha$ 에, 위치 접미사-격 접미사(格接尾辭 case suffix  $\beta$ )를 배합하여서 이루며, (1나b3)에서, 동사절  $\beta\alpha$ 의 구성은 그 문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 verb stem  $\beta$ 에,  $\beta\alpha$ -곧, n개의 접미사를 첨가 배합하여서 이룬다. 그런 배합 방식들을 각각 문 구조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alpha\beta \rightarrow \alpha\beta\beta$ 와 3.  $\beta\alpha \rightarrow \beta\alpha\alpha$ 이다.

4)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문 구조에 일정한 위치에 분포하였다고 하여서, 그 구성소가 지닌 통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 구성소가, 그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다른 구성소와 바른 상관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그 구성소는 그 문 구조에서 바른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소의 존재 가치는, 그 구성소가 그 문 구조에 분포 공존하는 다른 구성소와 공유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 또는 상대성)을 따라서 나타난다.

5) 여기에 쓴 기호 중에서,  $\alpha$ 은 문 구조를,  $\alpha\beta$ 은 명사절  $\alpha\beta$ 의 어간 명사를,  $\beta\alpha$ 은 동사절  $\beta\alpha$ 의 어간 동사를 말한다. 그리고, 기호  $\rightarrow$ 은 ‘이룬다’로 읽는다.

그러므로, 문 구조의 최대 단위는  $\square$ 이고, 최소 단위는  $\square$ ,  $\square$ ,  $\square$ 들이다.

동사절  $\square$ 의 구성소 중에, 어간 동사를 기호  $\square$ 로 적으면, 이것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 그런데, 그것이 자동사  $\square$ 이면, 그 동사의 소성은 자동성<sub>x</sub> intrastivity이므로, 그것이 문 구조에 분포하면, 스스로의 통어 기능만으로도 주어의 동작-자동성을 띤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타동사  $\square$ 이면, 그 통어 소성이 타동성<sub>t</sub> transtivity이므로, 이 동사는 문 구조에 분포하면서, 반드시 피사어절  $\square$ 를 끌어서, 이를 통솔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 곧, 타동사는 공식과 같이 확장한다.

위의 문절- $\square$ 과  $\square$ 의 구성 공식에서, (1나b4)의  $\square$ 은 명사절의 어간 명사-명사절에, 어간으로 분포한 명사-를 말하고, (1나b6)의  $\square$ 은 동사절의 어간 동사-동사절에, 어간으로 분포한 동사-를 말한다.

문절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간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절의 어간에는, 그 어간이, 어간답게,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접미사들을 반드시 첨가하여야 한다. 곧,  $\square$ 의 어간  $\square$ 에는, (1나b5)의 위치 접미사-格接尾辭 case suffix  $\square$ 가 첨가하여야 하고<sup>6)</sup>,  $\square$ 의 어간  $\square$ 에는, (1나b7)의 형식 접미사-形式接尾辭 formative suffix를 위시하여서, 여러 가지 접미사  $\square$ 가 첨가하여야만, 그 어간  $\square$ 과  $\square$ 은, 각각 그 문 구조에서, 그 문 구조를 이룬 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6) 명사절  $\square$ 의 구성은 문절의 어간 명사에 위치 접미사를 첨가 배합함으로 이루는데, 이를 공식으로 적으면,  $\square \rightarrow \square \square$ 와 같다. 그런데, 명사에 첨가하는 접미사에는 위치 접미사와 통용 접미사가 있다. 위치 접미사는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서, 문절의 어간으로 쓰인 명사가 문 구조에서 차지하는 분포 위치와 통어 기능을 보여 줌과 함께, 그 접미사가 표출하는 의미를 그 어간에 더하여 준다. 가령, 명사절의 어간 명사가 ‘복음’이라면, 그 어간 명사 ‘복음’은, 서술어와 상관 관계성 correlative relations을 가진 위치 접미사가 자기에게 와서 첨가함으로, 그 위치 접미사의 소성을 따라서, 그 어간 명사는 주어, 주제어, 소속어, 피사어, 시처어(부사어) 중의 한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곧, 서술 동사의 통솔 아래에 있는 위치 접미사가 지닌 통어 속성을 따라서, 그 어간 명사는 문절어-문절의 어간-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간	접미사	접미사의 통어 기능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서 분포한 접미사의 위치
□	이 □	- 주어 위치 접미사	- 주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	은 □	- 주제 위치 접미사	- 주제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복음	의 □	- 소속 위치 접미사	- 소속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	을 □	- 피사 위치 접미사	- 피사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	에 □	- 시처 위치 접미사	- 부사어로 쓰는 어간 명사에 첨가함.

그리고, 통용 접미사는 문 구조에 분포하는 명사에 첨가하되, 때로는 일정 규칙 아래에서, 위치 접미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면서, 그 접미사가 지닌 의미를 그 어간에 더하여 주고, 때로는 그 의미만을 그 어간에 부가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동사절에 분포하는 접미사들을 놓고는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있다. 그것은, 곧,  $\square$ 에 첨가하는 접미사  $\alpha$ 들은,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어의 통솔 아래에 있음과,  $\square$ 에 첨가하는 접미사들  $\alpha_n$ 은 주어의 통솔 아래에 있음을 역력히 말하여 준다.7)

그러면, (1나b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예문 구조를 의미를 지닌 단위로 분석하여 보면, 예로 든 문 구조(1나b1)는 두 개의 문절(1나b 2, 3)과, 다섯 개의 형태소(1나b 4, 5, 6, 7)로 구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종 기호열-종단전기호열 終端前記號列 preterminal string-의 기호에다가, 각각 들어설 수 있는 형태소-어휘-를 대입하여 보면, 형태소로 구성된 종단열 終端列 terminal string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1가)에 보인 예문 구조와 견주어 보면, 동일한 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곧, 명사절의 어간 명사  $\square$ 에는 {바울}을, 그 어간에 첨가하는 주어 위치 접미사  $\alpha$ 에는 {-이}를, 그리고, 동사절의 어간 동사  $\square$ 에는 자동사  $\alpha_x$  {오-}를, 그 동사절의 어간에는 시상 접미사  $\alpha_{시}$  {-니}과 형식 접미사  $\alpha_{형}$  {-다}를 대입한 것이다. 그렇게, 최종 기호열-종단전기호열-의 기호들에다가, 그들이 지닌 통어 소성에 알맞는 형태소를 대입하고서, 보면, 남아 있는 기호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곧, 문 구조의 분석이 바른 결과를 가져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문 구조를, 서술어로 분포한 동사의 통어 소성을 중심으로 하여서, 살펴 보면, (1다)에서처럼, 문 구조에는, 자동문 구조  $\alpha_x$ 와 타동문 구조  $\alpha_{타}$ 가 있음을 본다. 곧, 자동사  $\alpha_x$ 가 문 구조에 서술어로 분포하면, 그 문 구조를 자동문 구조라,고 하고, 타동사  $\alpha_{타}$ 가 그 문 구조에 서술어로 분포하면, 그런 문 구조를 타동문 구조라,고 한다. 그것은,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동사  $\alpha$ 가 지닌 통어 소성-자동성  $\alpha_x$ 과 타동성  $\alpha_{타}$ 이 그런 문 구조를 이루는 통어 요소가 되기로서다.

그리고, 그 문 구조를 통어 기능면으로 보면, 평서문 구조로 구성된 ‘바울이 온다.’인데, 그것은, (1라)에서처럼, 주어절  $\alpha$ 과 서술어절  $\alpha$ 의 상관 배열로 이룬다. 주어절의 구성은, 그 주어절의 어간 명사로 분포한 주어에, 주어 위치 접미사-격 접미사/격조사-가 첨가함으로 이루며, 서술어절의 구성은 어간 동사로 분포한 서술어에,  $n$ 개의 접미사, 곧, 존대, 시칭, 양식 접미사, 형식 접미사,들이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배합 첨가하여서 이룬다.8) 그런데, 그 접미사들이 동시에, 모두 다, 그 어

7) 이런 통어 이론을 놓고서는 다음 항목에서 보임. 필자의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시기 바람.

8) 문절의 구성을 형태소 배합 방식으로 보고서, 그 두 문절의 구성 방식을 문절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다. [바울이] → {바울}{-이}, [온다] → {오-}{-니}{-다}. 곧, 명사절의 어간은 명사 {바울}이고, 동사절의 어간은 동사 {오-}다. 여기에서 명사, 동사라고 하는 것은 문절의 어간으로 들어선 형태소만을 이룬다. - 여기에서는, 학교 문법 이론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동사 [오-]를 본다.

간에 첨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것끼리만, 일정한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그 어간 동사에 첨가 배합한다.

문 구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동문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보인 문 구조에 분포한 동사절  $\alpha$ 의 어간 동사  $\alpha$ 가 들어설 위치에, 타동사  $\alpha$ 가 분포하면, 그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은 타동문 구조로 다음의 (2)와 같이 전환한다.

(2) 타동문 구조의 구성 방식:

가. 예문 구조 :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였다.

$\alpha$        $\beta$        $\alpha$

- 나. 1.  $\alpha \rightarrow \alpha \beta \alpha$  문  $\rightarrow$  명사절 + 피사절 + 동사절  
 2.  $\alpha \rightarrow \alpha_{위}$  명사절  $\rightarrow$  어간 명사<sub>1</sub> + 주어 위치 접미사  
 3.  $\beta \rightarrow \alpha_{위}$  피사절  $\rightarrow$  어간 명사<sub>2</sub> + 피사어 위치 접미사  
 4.  $\alpha \rightarrow \alpha \alpha_n$  동사절  $\rightarrow$  어간 타동사 + 시칭 접미사 + 종결 접미사

아래에서는, 위에서 보인 단위 기호에 들어설 수 있는 형태소를 대입한다.

5.  $\alpha$   $\rightarrow$  {바울}
6.  $\alpha_{위1}$   $\rightarrow$  {-이}
7.  $\alpha_2$   $\rightarrow$  {복음}
8.  $\alpha_{위2}$   $\rightarrow$  {-을}
9.  $\alpha$   $\rightarrow$  {선포하-}
10.  $\alpha_n$   $\rightarrow$  {-았}{-다}

- 다. 문법 범주: 타동문       $\alpha$        $\beta$        $\alpha$   
 라. 통어 기능: 평서문      주어절      피사어절      서술어절

(2)를 보는 방식은 (1)을 보는 방식과 같다. 그러므로, (2가)의 예문 구조를 분석하여 본다. 문 구조의 최종 기호열과, 그 기호열에 들어설 수 있는 소성을 지닌 형태소를 대입하면, (2나5~10)에서처럼, 종단열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다)에서, 그 예문 구조를 문법 범주로 살펴 보아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주명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라)에서, 그 범주에 해당하는 최종 기호열을 이룬 기호들에, 대입할 수 있는 형태소를 대입하면, 종단열을 얻음과 동시에, 이들이 지닌 통어 기능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기본문 구조로 있는 자동문 구조의 통어 특징과 타동문 구조의 그것과를 비교하여 보면, 자동문 구조와 타동문 구조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다름을 알려고 하여서, 우리는 (1나)에 보인 문 구조 구성 방식과 (2나)에 보인 문 구조의 구성 방식과를 아래의(3)에서 비교하여 본다.

(3) 자동문 구조와 타동문 구조의 비교:

A <u>문 구조 구성 공식</u>	B <u>표출문 구조로 나타난 예문</u>	C <u>문 구조의 종류</u>
가. $\square \rightarrow \square\text{ㅅ} \text{ㅅ}$	바울이 온다.	자동문 구조
나. $\square \rightarrow \square\text{ㅅ} \text{표}\text{ㅅ} \text{ㅅ}$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다.	타동문 구조

(3가)와 (3나)를 비교하여 보면, 문 구조를 이룬 문절 가운데, 전자에 전주어서, 후자는 표ㅅ을 더 가지고 있다. 이것은 (2)에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3가)에 예로 든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가 자동사이므로, 주어나 행동주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그 자동사가 지닌 통어 기능만으로도 넉넉히 서술할 수 있다. 그러나, (3나)에 올린 예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는 타동사이므로, 자기의 서술 기능만으로는 주어나 행동주의 동작이나, 상태나, 존재, 등에 대하여서 서술하지 못하므로, 그 모자라는 서술 기능을 보완하여 줄 보어나, 보어절이나, 보완문- complements-을 필요로 한다.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려고 하여서, 서술 동사는 그 보완 문절로 피사어 절 ㅅ을 끌어들이어서, 이를 통솔함으로, 그와 함께 확장 서술동사 [표ㅅ ㅅ]를 이룬다. 그런 구절을 표출 언어로 나타내면, [복음을 선포하-]가 된다. 곧, 서술 동사가 그와 같은 확장 동사의 형태를 갖추었을 때에라야, 그 확장 서술 동사는 주어의 동작, 등을 서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기본문 구조에는, (3가)와 (3나)와 같은 두 가지 다른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3가)와 (3나)의 문 구조 둘을 현대 언어학에서는, 기본문 구조 하나로 종합하여서, 아래의 (4)와 같이, 적을 수 있다.

(4) 기본문 구조의 구성 공식:

$$\square \rightarrow \square\text{ㅅ} (\text{표}\text{ㅅ}) \text{ㅅ}$$

위의 기본문 구조를 구성하는 공식에서, (표ㅅ)에다가 괄호를 쳐 놓았음을 본다. 괄호는, 그 다음에 잇는 동사 ㅅ가 지닌 통어 소성을 따라서, 피사어절을 끌어들이서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한다. 피사어절을 끌어서 통솔하지 않는 동사의 통어 소성이 자동성 ㅅ을 띠고 있으면, 곧, 그 동사가 자동사이면, 피사

어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문절은 괄호에 묶여 있는 것이므로, 그런 문절을 이룬 기호들에는, 형태소를 대입하지 않는다. 곧, 그런 문절은 그 문 구조에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친다. 그러나, 그 서술 동사가 타동사이면, 그 동사가 지닌 타동성  $\tau$ 을 보완하여 주어야 하므로, 그 서술 동사는 피사어절을 반드시 끌어서, 이를 부려야 한다. 그럴 때에는, 그 문 구조 구성 공식에서 괄호를, (3나)의 공식에서와 같이, 벗겨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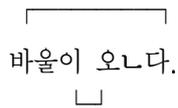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적어 놓고서 보면, 단순한 기본문 구조로 이룬 문 구조의 구성 공식은, (3)에서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둘을 하나로 종합하여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점이 현대 언어학 이론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보인 문 구조 구성 공식을 문 구조 구성 구조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5) 가.  $\square \rightarrow \square z (\text{표} z) \square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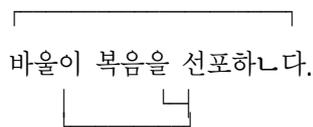
나1. 자동문 구조의 구조도

$\square \rightarrow \square z \square z \dots$  이것은 자동문 구조이므로, 공식에서  $\text{표} z$ 을 괄호를 쳐서 줄였다.



나2. 타동문 구조의 구조도

$\square \rightarrow \square z \text{표} z \square z \dots$  이것은 타동문 구조이므로, 공식에서 ( $\text{표} z$ )의 괄호를 벗겼다.



(5가)는 앞에서 예로 든 예문 구조를 구성하는 구성 공식을 보인 것이고, 그 공식의 예문을 구조도 위에 올려 놓고서, 문을 이룬 문절과 문절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 줄여서, 상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을 상관성 선으로 그려 보이면, (5나1)와 (5나2)와 같다.<sup>9)</sup> 그 상관성은 주어와 서술어가 상대어에 대하여 기능하여야 할 통어 기능의 향방을 상대성 선으로 보여 준다.<sup>10)</sup>

그런데, 문 구조에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 구조 구성 방식 이외에도, 문

9) 상대적 상관 관계성을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시기 바람.

10) 필자의 앞의 책을 보아 주기를 바람.

구조에 들어서는 구성소들이 있다. 그것은 문 구조에 분포하는 주어, 피사어로 쓰는 명사의 개념의 범위를 한정하여 줄 구성소들과, 서술어의 개념을 한정하여 줄 구성소들이 있다. 이들을 한 데 묶어서 보이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공식들을 찾아내는 방식은, 위에서, 명사절과 동사절의 구성을 말할 때에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부언한다.

곧, 아래의 한정어(限定語 attributive/ 한정절(限定節 attributive phrase/ 한정문(限定文 attributive sentence)들이 문 구조 구성 공식<sup>11)</sup>에 들어서는 과정은, 앞에서 살펴 본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침을 말하여 둔다. 이들도 문 구조에 분포한 어간 명사의 확장한 문절어-어간 명사의 확장한 어간 명사이나, 어간 동사의 확장 문절어-어간 동사의 확장한 어간 동사의 한 부분들이다.

그런 확장 문절어의 구성 방식을 문절어 확장 공식으로 살펴 본다.

아래의 (6)에서, 좌편에는, 문절의 어간 명사나, 어간 동사를 확장하는 방식을 문절어의 확장 공식으로 적고, 그 우편에다가는, 그 공식을 이룬 기호에다가, 그 기호가 지닌 소성에 부합하는 형태소-어휘를 각각 대입하여 본다.

(6) 가. 확장 명사의 구성 공식과 그 예:

<u>확장 문절어의 구성 공식</u>	<u>예</u>
a) □ ⇒ (ㅎ/ㅎㅈ/ㅎㄷ) □	예로 든 공식에서, 괄호를 벗긴 확장어
a1) □ ⇒ ㅎ □	그 바울-
a2) □ ⇒ ㅎㅈ □	사도인 바울-
a3) □ ⇒ ㅎㄷ □	믿음이 좋은 바울-

나. 확장 동사의 구성 공식과 그 예:

b) 공식 ㄷ ⇒ ((ㅎ/ㅎㅈ/ㅎㄷ) ㅍㅈ) (ㅂ/ㅂㅈ/ㅂㄷ) ㄷ	
b1) ㄷ ⇒ ((ㅎ/ㅎㅈ/ㅎㄷ) ㅍㅈ) ㅂ ㄷ	잘 선포하-
b2) ㄷ ⇒ ((ㅎ/ㅎㅈ/ㅎㄷ) ㅍㅈ) ㅂㅈ ㄷ	믿음으로 선포하-
b3) ㄷ ⇒ ((ㅎ/ㅎㅈ/ㅎㄷ) ㅍㅈ) ㅂㄷ ㄷ	자기가 믿음으로 선포하-
b4) ㄷ ⇒ ㅍㅈ(ㅂ/ㅂㅈ/ㅂㄷ) ㄷ	복음을 ( ) 선포하-
b5) ㄷ ⇒ ㅎ ㅍㅈ(ㅂ/ㅂㅈ/ㅂㄷ) ㄷ	그 복음을 ( ) 선포하-
b6) ㄷ ⇒ ㅎㅈ ㅍㅈ(ㅂ/ㅂㅈ/ㅂㄷ) ㄷ	참된 복음을 ( ) 선포하-

11) 본문에서, ‘한정사/한정절/한정문’ 사이에 들어 있는 사선 / 은 ‘이나’나, ‘또는’으로 읽는다.

- b7)  $\alpha \Rightarrow \alpha\beta\gamma(\delta/\epsilon/\zeta)\eta$   $\alpha$       자기가 믿는 복음을 ( ) 선포하-
- b8)  $\alpha \Rightarrow \alpha\beta\gamma \delta \eta$       자기가 믿는 복음을 잘 선포하-
- b9)  $\alpha \Rightarrow \alpha\beta\gamma \delta\epsilon \eta$       자기가 믿는 복음을 진정으로 선포하-
- b10)  $\alpha \Rightarrow \alpha\beta\gamma \delta\epsilon\zeta \eta$       자기가 믿는 복음을 정성을 다하여 선포하-

그러면, 이제, 우리는 (3가)와 (3나)에서 본 기본문 유형의 구성과, (6)에서 본 (6가)와 (6나)의 확장 방식을 한 데다가 모아서, 그 문 구조를 이룬 하위 단위 별로 문절을 분석하여 보고, 그 문절을 이룬 하위 단위 별로 형태소를 분석의 기초 단위로 분석하여 가면서, 그 문 구조의 구성을 살펴 보면, 다음의 (7가1~7)에서처럼, 상위 단위上位單位인 문 구조는 하위 단위下位單位인 문절들의 배합으로 이루고, 그 하위 단위인 문절들은 각각 하하위 단위下下位單位이며, 최소 하위 단위인 구성소들의 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7) 기본문 구조의 구성 방식:

- 가. 1.  $\alpha \rightarrow \alpha\beta(\gamma\delta \epsilon\zeta)$
- 2.  $\alpha\beta \rightarrow \alpha\beta_{\eta}$
- 3.  $\gamma\delta \rightarrow \alpha\beta_{\eta}$
- 4.  $\epsilon\zeta \rightarrow \alpha\beta\eta$
- 5.  $\alpha \rightarrow$  a)  $\alpha \dots \alpha$ 과  $\beta$ 과  $\gamma$ 의 어간으로 분포함.  
b)  $\beta \dots \beta$ 의 어간으로 분포한  $\alpha$ 임. 곧,  $\beta = \alpha$
- 5.  $\alpha \rightarrow$  a)  $\alpha_{\eta} \dots \alpha_{\eta}$ 의 서술어로, 어간 자동사가 분포함.  
b)  $\alpha_{\epsilon} \dots \alpha_{\epsilon}$ 의 서술어로, 어간 타동사가 분포함.
- 7.  $\alpha \rightarrow$  a)  $\beta_{\eta} \dots \alpha$ 과  $\beta$ 과  $\gamma$ 의 어간에 첨가함.  
b)  $\beta\eta \dots \alpha$ 의 어간에 첨가함.

그런데, 최소의 하하위 단위인 명사  $\alpha$ 와 자동사  $\alpha_{\eta}$ 와 타동사  $\alpha_{\epsilon}$ 는, 이들이 지닌 그 통어 소성 때문에, 발화에서, 발화인이 필요함을 따라서는, 명사와 자동사와 타동사의 표출 의미의 범위를 한정限定할 수 있다. 그런 때에는, 문절어인  $\alpha$ 는 한정사나 한정절이나 한정문을,  $\alpha_{\eta}$ 는 부사나 부사절이나 부사문을 끌어서, 그와 함께 스스로를 확장한다. 곧, 그 문절어인 명사는 끌어당긴 한정사/한정절/한정문과 함께 ‘확장 명사’를 이루고, 그 문절어인 동사는 자기가 끌어당긴 부사/부사절/부사문과 함께 ‘확장 동사’를 이룬다. 문절어의 확장도 전환 방식의 일종이므로, 이를 공식으로 표기할 때에는, 전환 기호  $\Rightarrow$ 를 사용한다.

문절어의 확장 전환 방식과 문 구조의 확장 전환 방식을 문절어 확장 전환 공

식과 문 구조의 확장 전환 공식으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8) 가. 문절어의 확장 전환 방식:

1. □ ⇒  $\text{ㅎ/ㅎㅈ/ㅎㅊ} \square$
2. □ ⇒
  - a) □<sub>ㅈ</sub> ⇒  $\text{ㅈ/ㅈㅈ/ㅈㅊ} \square$
  - b) □<sub>ㅊ</sub> ⇒  $\text{ㅎ/ㅎㅈ/ㅎㅊ} \square$  또는  $\text{ㅈ/ㅈㅈ/ㅈㅊ} \square$

나. 문 구조의 확장 전환 방식:

- ⇒
  - a) □<sub>ㅈ</sub> ⇒  $\text{ㅎ/ㅎㅈ/ㅎㅊ} \square$  또는  $\text{ㅈ/ㅈㅈ/ㅈㅊ} \square$
  - b) □<sub>ㅊ</sub> ⇒  $\text{ㅎ/ㅎㅈ/ㅎㅊ} \square$  또는  $\text{ㅈ/ㅈㅈ/ㅈㅊ} \square$

다. 문 구조 구성에, 문절 구조의 전환 방식을 적용하여서 문 구조 하나로 통합함:

$$\square \Rightarrow \text{ㅎ/ㅎㅈ/ㅎㅊ} \square (\text{ㅎ/ㅎㅈ/ㅎㅊ} \square) \text{ㅈ/ㅈㅈ/ㅈㅊ} \square$$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할 것은, (8가1)의 확장 명사가 문 구조에 분포하여서, 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그 문 구조에 분포하는 서술 동사의 통술 아래에 있는 위치 접미사-주어 위치 접미사, 피사어 위치 접미사, 부사어 위치 접미사 중의 하나를 맞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확장 명사  $\text{ㅎ/ㅎㅈ/ㅎㅊ} \square$ 의 핵이 명사 □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그 확장 명사는 그 접미사의 소성을 따라서, 그 문 구조에서, 주어, 피사어, 또는 부사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sup>12)</sup>

그와 동시에, (8가2)의 확장 동사가 문 구조에 분포하려고 하면, 그 문 구조에, 주어로 분포할 명사의 통술 아래에 있는 종결 접미사를 맞음으로서, 비로소, 확장 서술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확장 동사  $\text{ㅈ/ㅈㅈ/ㅈㅊ} \square$ 의 핵이 동사 □이기로서다. 필요함을 따라서는, 그 종결 접미사 앞에, 태상態相, 존대尊待, 시칭時稱, 겸양謙讓, 시상時相 접미사 중의 더러, 또는, 전부를 끌어서, 부가할 수 있다.

12) 이 확장 명사는 서술어의 통술 아래에 있는 위치 접미사를 맞아들임으로, 그 확장 명사는 자기에게 첨가하여 온 접미사의 소성대로 주어, 주제어, 한정어, 피사어, 부사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 예를 아래에 든다. 위치 접미사 다음에 보인 주어, 주제어, 한정어, 피사어, 부사어, 등은 확장 어간 명사 ‘사도 바울’의 통어 소성을 보인 것이다. 이 예를 미루어서, 명사절에 분포한 어간 명사가 무엇의 통술 아래에 드는가, 함도 알 수 있다.

- |   |     |      |
|---|-----|------|
| ┌ | -가  | 주어로  |
| ├ | -는  | 주제어로 |
| ┤ | -의  | 한정어로 |
| ├ | -을  | 피사어로 |
| └ | -에게 | 부사어로 |

이런 접미사들은 ‘주어에 대한 서술어의 서술 기능’을 보완할 때에 필요함을 따라서, 부가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8가1)과 (8가2)의 확장 문절어가 문 구조에 분포하여 들어서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 문절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접미사의 첨가를 기다려야 한다. 곧, 확장 명사는 서술 동사의 통솔을 받는 위치 접미사의 첨가를 받아야 하며, 확장 동사는 명사로 구성된 주어-또는, 행동주의 통솔을 받는 종결 접미사, 등의 첨가를 받아야만, 문절어들이, 각각, 그 문 구조를 이룬 문 구조에서, 그 문절의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은, 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로 쓰이는 명사와 동사가 서로 상대어에 대하여서,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을 지니고 있음에서다.

이상과 같은 통솔 규칙 아래에 드는 문절들이 문 구조에 분포하면, 그 문 구조에서는, 통어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통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 구조는 ‘문 구조의 기본문 구조’로 이룬 기본문 유형-줄여서, 기본 문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갖춘 문 구조로 문장을 이루려는 사람은 문 구조의 구성 규칙을 철저히 지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 항목을 마감하면서, (8다)에서 보인 기본문 구조 유형에, 문절 구조의 전환 규칙을 적용하여서 이룬 문 구조의 일반 유형을 예로 든다.

그런 유형의 예를 들려고 하면, (8)에서 보인 문 구조의 유형을 역으로 풀어가면서, 문 구조 구성 공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곧, (8다)의 문 구조 유형을 (8나)에서 보인 바와 같은 해법 두가지로 보려고 하면, 예문을 발화문- 표출문- 구조로 이루기는 쉬울 것이다. 공식 기호에, 형태소를 대입할 때에는, 공식에서 보는 괄호를 바깥으로부터 벗겨 가면서, 형태소를 차례대로 대입하여 가면, 표출문 구조를 얻을 수 있다.

(9) 가.  $\square \Rightarrow (\text{ㅎ/ㅎㅈ/ㅎㄷ}) \square \text{ㅈ} ((\text{ㅎ/ㅎㅈ/ㅎㄷ}) \text{ㅍㅈ}) (\text{ㅂ/ㅂㅈ/ㅂㄷ}) \square \text{ㅈ}$ 의 해법 두 가지:

a.  $\square \text{ㅈ} \Rightarrow (\text{ㅎ/ㅎㅈ/ㅎㄷ}) \square \text{ㅈ} ((\text{ㅎ/ㅎㅈ/ㅎㄷ}) \text{ㅍㅈ}) (\text{ㅂ/ㅂㅈ/ㅂㄷ}) \square \text{ㅈ}$

b.  $\square \text{ㅈ} \Rightarrow (\text{ㅎ/ㅎㅈ/ㅎㄷ}) \square \text{ㅈ} (\text{ㅎ/ㅎㅈ/ㅎㄷ}) \text{ㅍㅈ} (\text{ㅂ/ㅂㅈ/ㅂㄷ}) \square \text{ㅈ}$

나. 위의 공식에, 형태소를 대입하여서 이룬 표출문 구조 두 가지:

a. 그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은 교회로 곧바로 나왔다.

b. 진실한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정성껏 증거하였다.

이상에서 본 것으로, 우리가 아는 바는, 발화인이 (9나a)에서는, 단순 자동문 구조로 문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한정문 **하**이 주어의 의미를 한정하고, 부사절 **나**이 서술어의 표출 의미를 한정하고 있음을 본다. 또 다른 발화인은 (9나b)에서, 단순 타동문 구조로 문 구조의 골격을 이루고, 거기에, 주어가 표출할 의미를 한정사 **하**와 한정절 **하**를 끌어서 확장하고, 서술어는 타동성을 띠고 있으므로, 피사어절 **나**를 끌어들이어서, 그 타동성을 보완하고, 서술어의 서술 범위는 부사절 **나**과 부사어 **나**를 끌어서, 확장하고 있음을 본다. 타동사가 서술어로 분포하여서, 피사어를 통솔할 경우에도, 피사어를 한정하는 한정절 **하**는 피사어의 통솔 아래에 있음을 본다.

곧, (10나)에 보인 두 기본문 구조의 확장 방식을 확장 순서대로 내려 적어 보면, 긴 설명을 줄여도 좋을 것 같다.

(10) (9나a)에서	<b>나</b>	<b>나</b>	<b>나</b>
	사람은	나왔다.	<b>기본문 구조</b>
	복음을 들은 사람은 교회로	나왔다.	제1차 확장
	그 복음을 잘 들은 사람은 교회로 곧바로	나왔다.	제2차 확장
(9나b)에서	<b>나</b>	<b>나</b>	<b>나</b>
	전도사가	말씀을	증거하였다.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앞에서	증거하였다.
	성실한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람 앞에서	정성껏 증거하였다.
	성실한 그 전도사가 진리의 말씀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정성껏 증거하였다.

이상에서, 기본문 구조를 확장하여 가는 절차를 보았다. 기본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가 필요함을 따라서, 각각, 한정어(절)과 부사어(절)을 끌어서 확장함을 본 것이다.

그런데, 번역이 끝나서, 텍스트를 이루어 놓고서, 보면, 그 텍스트에 들어선 문 구조에, 뒤틀린 데가 있거나, 빠져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 할 때가 있다. 그런 오류나 실수는,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성-상관성을 통어 규칙으로 잘 적용하지 못하였음에 기인한다. 그것은, 곧,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의 어간의 분포 방식을 그르쳤든지, 문절어의 확장 방식을 그르쳤든지, 또는, 문 구조의 전환 방식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번역문으로 구성한 텍스트를

이론 뒤에, 추고, 수정 과정에서, 문 구조와, 그 문 구조를 이룬 문절 구조가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적용받았는가, 함을 잘 다져 보아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점검하여 보아야 할 문절어의 확장 규칙과 문 구조의 확장 전환 규칙, 등 몇 가지를 요약하여서, 소개한다.<sup>13)</sup>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성한 기저문 구조를 전환하여서, 표출문 구조로 구성된 기본문 구조로 발화한다. 그런데, 발화인이, 그 문 구조의 어떤 문절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문 구조를 이룬 주어절이나 서술어절의 어간, 곧, 문절어-명사나 동사-를 확장한다. 그리고 또, 확장한 문절 구조의 하위 단위로 들어선 문절의 문절어를, 필요함을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데, 그 때에도, 동일한 확장 과정을 거친다. 그것은, 문절어가 지닌 통어 소성들-통어 특징들이 그러하기로서다. 그 소성은 남-한정어나 한정절, 또는 피사어절-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통솔하지 아니하면, 곧, 보어나 보어절을 끌어들여서, 이를 통솔하지 아니하면, 기본문 구조의 문절어가 그 문 구조에서, 문절어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하하위 문절어에서도 마찬가지다.

곧, 문절어의 확장으로, 문 구조의 의미가 정확성을 띠는 것은, 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내재하는 상관성이, 문 구조의 구성 과정에서, 그 문 구조를 이룬 주어와 서술어의 통어 기능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절의 핵으로 있는 어간, 곧, 그 문절어를 확장함에서도, 그런 확장 과정을 잘 거쳐야만, 문절어와 그 문절어의 통솔 아래에 있는 작은 문절어와의 상관성이 정확하여 지지만, 그런 문절어의 문절어들이 배열하여서 이룬 표출문 구조는 논리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인은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이, 문절의 확장 규칙을 잘 적용하였는가, 함을 충실히 점검하여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는 힘을 지닌 언어 능력을 담고 있다. 어린 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알게나 모르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자기가 표출하는 말의 문 구조에 들어선 문절어를 확장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여 가면서 자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의 표출한 문 구조에는, 어른들이 놀랄 정도의 논리성을 띠 때가 있음을 본다. 그것은, 어린이는 언어 생활 속에서, 무의식 중에서도, 문절어의 확장 규칙을 잘 익혀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 문 구조의 상관성과 문절어의 확장 규칙]

기저문 구조를 표출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발화-말이나 글-로 나타날 때에, 기본문 구조에 분포한 문절어들이 지닌 통어 소성 까닭에, 그 문절어를 확장하여야 할

13) 전환 확장 규칙들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있다. 그런 때에, 그 문절을 확장하더라도, 표출문 구조가 지닌 기본문 구조의 문절어들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 줄여서, 상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원전에서 번역한 문 구조가 길어지더라도, 그 표출문 구조의 기본 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우리는 그런 면을 이미 예 (10)에서 보았다.

[이상, 문 구조를 확장하여도 기본 틀은 그대로 있다.]

번역문의 문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 직감하면, 기본문 구조 유형에서 파생한 한정문 구조가 문절어와 어떤 상대성을 지녔는가, 함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면, 한정절과 문절어 사이에서 나타난 오류를, 추고 과정에서 금방 제거하여서, 번역문 구조에서 잘못된 데를 수정하여서, 바로 잡을 수 있다. 곧, 그 문 구조에 분포한 문절어, 곧, 문절의 어간 명사나 동사가 무엇을 끝어서, 어떻게 확장하여야 하는가, 함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어떤 확장 전환 규칙을 적용하였는가, 함을 잘 살펴 보면, 번역문 구조에 나타난 오류, 곧, 문절의 확장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그 잘못된 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상, 한정문/한정절을 잘못 끝어들이면, 문 구조에 이상이 생긴다.]

발화인의 사고 작용을 따라서, 마음에서 생성한 기본문 구조는, 발화인이 그 마음에서 수행하는 전환 과정을 따라서, 문 구조 하나에서 다른 문 구조 하나로, 곧, 자동문 구조에서 타동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본문 구조가 전환문 구조로 전환하였어도, 이런 경우에는, 그 전환문 구조에는 단순 기본문 구조의 구성소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상 단순문 구조의 전환 규칙]

기본문 구조가 발화-말 utterance-나 담화 discourse로 나타날 때에는, 발화인과 응답인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그런 부분을 표출문 구조에서, 일정한 통어 규칙-문절어의 생략 규칙-아래에서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 때에, 표출문 구조에서 생략한 그 구절이 그런 생략 규칙을 따른 것인지를 분명히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이상, 생략 규칙]

텍스트에서, 긍정 단순문 구조로 있는 문 구조를 긍정 복합문 구조로 전환할 때에는, 전환 규칙을 잘 지켜야만, 온전한 복합문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전환 규칙을 어기면, 그 전환 문 구조의 구성이 모호하게 되며, 의미 내용도 흐려질 수 밖에 없다.

[이상, 단순문 구조를 복합문 구조로의 전환 규칙]

긍정문 구조를 부정문 구조로 전환하는 통어 규칙도 한국어의 통어 특징의 한 가지다.<sup>14)</sup> 그와는 역으로, 부정문 구조를 긍정문 구조로 전환할 때도 있다. 그 어떤 전환문 구조에서도, 전환 규칙을 분명히 지켜 가야 한다.

[이상, 긍정문 구조에서 부정문 구조로의 전환 규칙]

문 구조 전환 방식으로, 능동문 구성 계열에는, 능동-사동-사역화 방식이 있고, 수동문 구성 계열에는, 수동-피동-피역화 방식이 있다.

문 구조가 전환하는 요인 가운데에는, 능동과 수동 규칙, 사동과 피동 규칙, 사역-使役 規則-과 피역 규칙-被役 規則-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언어 구조에서는 볼 수 없는 통어 특징을 한국어의 문 구조는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능동 계열의 문 구조와 수동 계열의 문 구조는, 일정한 전환 규칙을 따라서, 그 계열을 넘나들 수 있다. 곧, 능동문 구조는 수동문 구조로, 사동문 구조는 피동문 구조, 그리고, 사역문 구조는 피역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역에서 피역으로, 그리고 다시, 사역으로 전환하는 등등, 그런 전환 규칙을 집합하여서, 전환 규칙을 구조화하여 보면, 모두 54 집합 sets의 전환 유형을 얻을 수 있다.<sup>15)</sup> 그만큼, 한국어의 전환 규칙에는, 다른 언어 구조들에서 볼 수 없는 전환 규칙들이 집합 sets으로 있다. 그런 점들은 한국어의 통어 규칙의 특징을 이룬다.

[이상, 능동 계열과 수동 계열, 그리고, 계열의 전환 규칙]

[전환 유형의 집합- 모두 54 세트]

사람은 어느 누구나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언어 능력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한 것을 기저문 구조 base sentence structure로 이루었다가, 응답인-상대인-을 만나면, 그 응답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지식이나 교양-의 문 구조로 전환하여서 표출한다. 그 표출문 구조를 언어 분석 방법을 따라서 분석하면, 우리가 번역문 구조가 기저문 구조의 이형태 variation임을 찾아낼 수 있다. 곧, 기저문 구조와 표출문 구조와 사이에는, 일정한 전환 과정이 있다. 만일, 그런 전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이룬 표출문 구조는 기저문 구조의 이형태를 이룰 수 없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에 라야, 표출문 구조에서 모호성을 덜어낼 수 있다.

[이상, 발화인은 자기가 사고한 기본문 구조를 상대인의 지적 정도에 맞춰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열 가지 전환 규칙을 번역문 구조에서 간결하게 잘 처리할 수 있어야만, 독자들이 번역문 구조들의 의미를 순하게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문장을 대하는 독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 까닭으로 하여서, 성경 번역인은, 번역문의 문 구조가 기본문 구조 유형을

14) 본문에서 언급한 전환 규칙들은 필자의 전제서를 참조하여 주기를 바란다.

15) 그런 전환 규칙을 놓고서도, 상계서 제27 장을 보아 주기를 바란다.

잘 활용하여서, 간결한 텍스트를 -문장을- 구성할 일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성경 번역문에 쓸 전환문 구조의 전환 유형을 확정하여 돕이 번역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과정들을 잘 살펴 보면, 그 번역문이 어린이에게 적합한가, 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 3.2. 문체

성경의 문체는, 물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서, 써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이 지은 글 중에서는,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한글판 성경’만큼 정연한 문체를 지니고 있는 책은 그리 많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이 이 책을 기도한 후에, 묵상하면서 읽어 가노라면, 지적이고 영적인 양식을 얻음은 물론이고, 영감을 받는 때도 있다. 그런데, 읽고 나면, 언제나 그 책에 ‘위엄’이 있음을 느낀다. 또 어떤 때에는, ‘장엄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것은, 개역 성경에서 채택하여서 쓴 문체가 ‘공손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문체를 갖춘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닐는지 모르지마는, 리파테르 M. Riffaterre가 “언어는 표현하고, 문체는 강조한다.”<sup>16)</sup>고 한 말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 말을 개역 성경의 문체에 견주어 보면, 어지간히 들어맞는 말 같다. 그만큼, 번역문의 문체는 독자에게 영향을 끼친다.

문화가 있는 민족에게는 노래가 있다. 신라의 향가, 백제의 정읍사,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용비어천가와 시조들과 서간문들을 보면, 정연우아한 문체를 지니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 노래들과 산문들이 우리의 심금에 와 닿음을 느낀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문체에 둘러싸인 노래와 시조와 소설의 작가들은 현대인보다 못하지 않은 문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노래와 시조와 소설들의 문체를 보면, 문체의 이론을 말하는 현대인들의 작품보다 못한 데가 없다. 다만, 그 때의 사람들은 문체에 관한 논의를 지금의 사람들처럼 학문적 틀로 짜지 않은 것뿐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 번역사업이 시작되자, 성경 번역문의 문체를 이루었으니, 그것이 곧, 공손체다. 곧, 그런 민족적 의식 속에 잠재하여 있는 것이 문체로 드러난 것이다.

20세기 초에 프랑스에서는, 드 소쉬르 Ferdinand de Saussure의 제자 바이이 Charles

16) Riffaterre, Michael, (1971).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e*, Paris, Flammarion. 1971.

Bally를 비롯한 프랑스학파에 속하는 몇 사람은 드 소쉬르의 랑그 langue와 빠롤 parole의 이론을 주축으로 하여서, 고전적인 구별 정신을 연유하여서, 포괄적인 문체론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빠롤로 개인적인 모든 것을 사회에 구현하고, 사회 집단 전체의 자산으로서의 랑그와를 구별하다가, 드락로와 Delacroix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빠롤과 랑그에, 랑가쥐 langage의 개념을 더 포함하여서, 전체 개념을 가지고서, 문체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문체론적 연구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이 있다. 고전적 문체론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 기질, 능력, 인생관을 나타내는 글들을 분석하여서, 고전적 문학 이론을 정립한다. 곧, 연구자들은 그런 이론 정립을 위하여서, 문체의 분석 작업을 한다.

그리고 또, 문체론에는 사회적 문체론도 있다. 언어학파의 대표자격으로 있는 이들은, 공동체가 지닌 문화 유형을 반영하는 언어 형식에 관심을 집중하여 본다.

문헌 대학 교수 포슬러 Karl Vossler (1872-1947)는 언어학 이론에 있어서는 훔볼트 Wilhelm von Humboldt(1767-1835)의 이론과 비슷하다. 훔볼트의 이론의 중심은, 언어 구조와 민족성과의 관계에 있다. 그는 민족 정신이 내적인 언어 형식으로 있다가,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언어는 이간 정신의 발로라는 이론을 세웠다. 포슬러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 연구는 문체의 연구라는 점에서만 참된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그리고, 그 문체에서, 사람이 쓰는 언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이 겨울에 비취는 모습과 같이, 잘 보인다고 한다. 그 본질은 미적 이상美的 理想에 대한 바람이다. 그러므로, 문체는 인간의 미적 이상의 개성적인 표현이라고 결론한다.<sup>17)</sup>

그러면, 과연 문체란 무엇인가. 이를 가장 평범한 말로 하면, 사람이 표출하는 말의 표현 형식이고, 표현 양식이다. 그러므로, 문체는 작가-학자도 포함함-의 개성이나 품격의 일부와 작가의 성숙도를 언어적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에 합일시킨 필치筆致를 일러서 문체라고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표출문 구조가 지니는 의미는 동일한데, 발화인이나 작가가 표출하는 문 구조의 형태를 달리하여도, 그 표현이 어법적으로 적합하면, 상대인이나 독자는 이를 그 문맥으로 보아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용인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문체의 이형문 allo-sentence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8)</sup>

17) Ivic, Kilka,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The Hague, 165-174항.

18) Smith N. & Wilson D. (1980), *Modern Linguistics -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 192.

문체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문 구조의 구성 방식과 상관하는 문제이고, 그런 문 구조 몇이 모여서, 텍스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가 그 다음으로 있을 수 있다.

문 구조의 구성 방식을 놓고서 보면, 한국어 문 구조 구성 방식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에는, 두 가지 면이 있음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표현 형식 modality을 중심하여서 다루는 문체 style가 있고, 다른 하나는, 표현 양식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루는 문체-화체 speech style가 있다. 이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은,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하는 서술어에 첨가하는 접미사(열)로 구성한다. 이런 면은 다른 언어 구조에서보다, 한국어 구조에서 더 발전하여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을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면밀히 살펴 보면, 그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은 동시에 서로 상승 관계(相乘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그 두 가지의 표출 양식과 형식은 서로 상승하여서, 동사절의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열) 하나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어의 통어 구조의 특징의 한 가지다.

그러면, 문 구조를 이룬 문절들-명사절과 동사절이 문 구조에서 나타내는 표현 형식-줄여서, 형식과 표현 양식-줄여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그 형식과 양식은 문 구조에서 서로 어떤 상관 관계(相關 關係) correlative relations를 지니면서 문체를 이룰까, 함을 살펴 본다. 그런 상관 관계는, 하나의 문 구조를 이룬 문절과 문절 사이에 내재하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줄여서, 상관성/상대성 correlative relations of relativity<sup>19)</sup>을 바탕으로 하고서 나타난다.

그런 상관성은,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이, 각각, 그 문 구조에서 수행할 수 있는 통어 소성 syntactic feature을 지니게 한다. 곧, 그런 통어 소성을 지닌 구성소들은, 그것이 문 구조를 이룬 문절의 어간이든지, 그 어간에 첨가하는 접미사이든지 가지리지 않고, 그것들이 분포한 문 구조에서, 일정한 통어 기능을 수행한다. 곧, 문 구조를 이룬 문절에 분포하는 어간은 어간으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하고, 접미사는 접미사로서의 통어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통어 기능이 문 구조를 이룬 구성소들에게 있으므로, 발화인은 이들로 일정한 통어 규칙 아래에서, 텍스트나 문 구조를 이루면서, 개성미 있는 문체를 생성할 수 있다.

19) 이를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문의 구성소들은 언제나 문법 규칙 아래에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문체를 가진 그 글을 읽는 어린이들은, 아무 거침 없이, 그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의 마음-두뇌에는, 그런 규칙을 지니고 있음에서 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원전에서 번역한 성경의 번역문은 한국어 통어 규칙에 맞는 문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문 구조가 지니는 그런 표현 양식과 표현 형식은, 그 문 구조 안에서,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들을 찾아 보려고 하여서, 다음의 예문 구조들을 살펴 본다. 특히, 예문에서 밑줄을 친 부분들을 잘 살펴 보기를 바란다. 예문은 동일한 구절을 세 가지 다른 텍스트에서 인용하여 왔다. 각 항을 서로 비교하여 보기를 바란다.

(11) A. 마 15:2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

- 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 b.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개역)
  
- 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 b.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개역 개정판)
  
- 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어기브니까.
- b.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표준 새번역)

B. 눅 24:29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와 ‘평교체’

- 가.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개역)
  
- 나.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개역 개정판)
  
- 다.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기를
-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시브시오” 하였다.
-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표준 새번역)

C1. 요 4:49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와 ‘평교체’

- 가. 신하가 가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개역)
- 나. 그 왕군 관리가 “주님, 제 자식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십시오.”  
하고 여쭙었다. (200주년 신약)
- 다.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십시오.” (표준 새번역)

C2. 행 1:20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

- 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개역)
- 나. 사실 시편에 ‘그의 처소는 황폐해 지고  
그 안에 거하는 자 없게 하소서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차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주년 신약)
- 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주거지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십시오. 하였고, 또 기록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표준 새번역)

C3. 막 5:7에 쓴 ‘공손체’와 ‘정식체’와 ‘평교체’

- 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기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개역)
- 나.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께 의지하여 당신에게 애원하오니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200주년 신약성서)
- 다.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표준 새번역)

위에다가 인용한 예문 구조들에서, 먼저, 서술 동사에 첨가한 서법 접미사들의 구성 방식을 동일 항목 안에서 서로 대조하여 보면,

- 1) 번역문마다 그 번역문의 문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sup>20)</sup>. 그러나,
- 2) 그런 문체를 가진 문 구조들에도,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 볼 문체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매우 강열한 표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다. 그런 점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만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서술어 앞에 선행하면서, 서술 동사가 서술하는 조건을 준 주어절-부사어절-피사어절의 연결 유형은 언제나 거의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서, 서술어 앞에 선행한다. (주어나 피사어에 대명사가 들어 있어도, 그 문절 구조는 그 문 구조상에서는 마찬가지로 구성 방식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그 연결 유형에 들어선 문절들의 구성 방식은, 서술어절의 표현 양식이 어떠한을 가리지 않고서, 언제나 동일하다. 그런 문절들의 연결체는, 주어와 서술어와 사이에 있는 존대 호응<sup>尊待 呼應</sup>과 같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한, 언제나 동일한 구조체를 지닌다.

차이점, 그것은,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술어절에서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접미사(열)로 구성하는 표현 형식-줄여서, 형식과 표현 양식-줄여서, 양식 접미사들에서 나타난다. 한국어에는, 그런 형식과 양식이 문체를 이루는 구성소 constituent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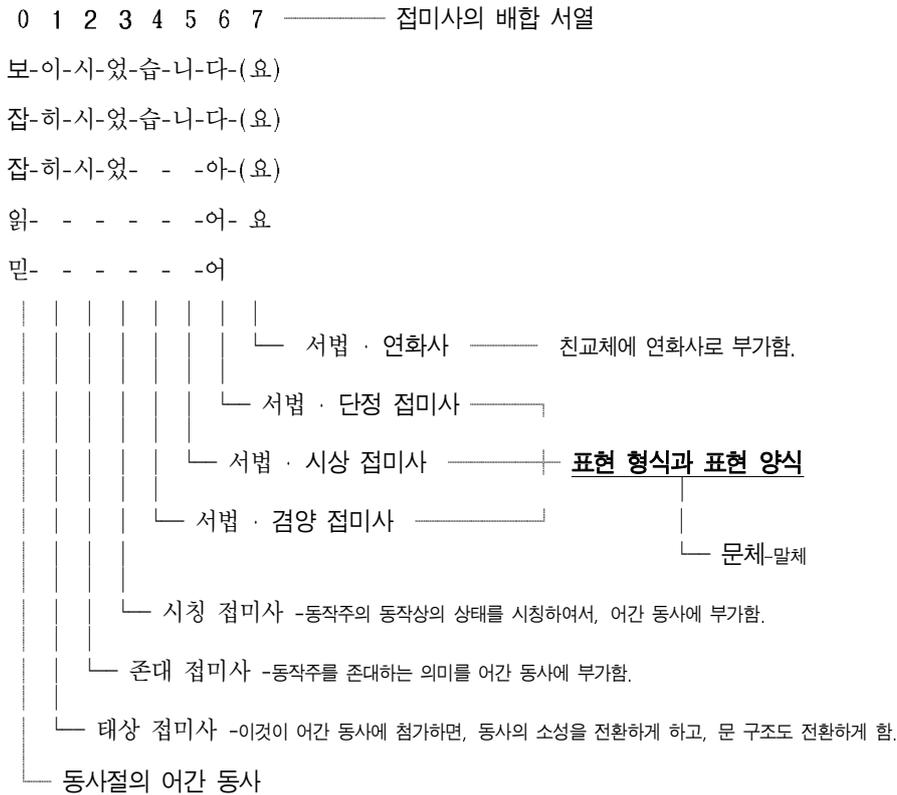
표현 형식 접미사와 표현 양식 접미사들이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위치를 다음의 구조도에서 살펴 본다. (그리고, 설명의 편의로, 친교체의 예도 부가하였다.)

(12) 서술어인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이루는 종결 접미사들과 그 분포 위치

- 예: [보이시었습니다]  
 [잡히셨습니다]  
 [보이시었어(요)]  
 [읽어요]  
 [믿어]

20) 번역문의 내용의 차이점에 관하여서는,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므로, 이것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접미사의 배합 방식- 접미사들의 분포 위치:



(12)에서, 서술 동사절의 구성 방식을 보았다. 곧, 동사절의 어간 동사에, 접미사 여섯이나 일곱이 배합 서열을 지키면서, 그 어간에 첨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사절이 문 구조에 분포할 때에는, 그 접미사들이 전부 다 그 어간에 첨가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 동사가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나, 그 주어가 들어설 자리에 들어선의 주체어의 동작, 상태, 존재, 등을 서술할 때에는, 그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나 주체어가 필요로 하는 접미사, 곧, 겸양, 시상, 종결, 등의 접미사는 물론, 그 밖의 접미사 중에서, 필요한 것 만큼, 끌어서, 서술 동사에 첨가한다. 그러므로, 서술 동사에 첨가하는 접미사의 수는 하나나, 그 이상으로, 여럿일 수 있다.

(12)는, 서술 동사절의 어간 동사에 접미사들이 첨가할 수 있는 분포 위치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서법이나 문체, 곧, 표현 형식이나 표현 양식과 상관 관계가 있는 접미사는,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미사 서열 (4)-(5)-6-(7)에 해당하는 접미사들과 이들과 대입하여서 쓸 수 있는 접미사뿐이다.<sup>21)</sup> 그런 접미사들은, 그 접미사들이 가서 첨가하는 서술 동사가 주어에 대한 동작-상태나, 존재도 포함할 -을 서술할 때에, 주어의 동작에 대하여서, 이들이 표출할 수 있는 의미를 그 어간 동사에 더하여 준다. 곧, 그런 의미를 지닌 접미사들은, 그 문 구조에 주어로 분포한 그 주어의 통솔 아래에서, 서술 동사절의 어간(+접미사)에 첨가한다.<sup>22)</sup>

그런 접미사들이 주어의 통솔 아래에서, 서술어절에 분포한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순간에, 이들은 그 접미사의 소성을 따라서 생성하는 본래의 의미를 표출함과 동시에, 그 문 구조에서

21) 이들을 놓고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시기 바람.  
 22) 자세한 것은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제6 장을 보아 주기를 바람. 인쇄 준비중임.

이들이 드러내는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그런 접미사들이 서술 동사절에 첨가 분포함으로써, 그 문 구조는 서법과 문체·표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

곧, 그런 접미사들이, 문 구조에 분포한 서술 동사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하면, 그것들이 그 문 구조의 서법(=형식)과 문체(=양식)를 결정짓는 요소-통어 특정 syntactic feature가 된다. 우리는 이런 점을 적출하여서, 통어 규칙을 이루는 요소로 봄은 물론, 이들을 통어론에서, 서법을 이루는 요소로 봄과 같이, 문체론에서도, 문체를 이루는 요소라고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면, 예문 구조에 나타난 문체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 본다. 곧, (11A)에 예로 든 a, b, c의 예문 구조들에서, 구조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음과 같은 대조 문 구조들에서 찾아 본다.

(13) (11A)의 각행의 a들

공통점	차이점	
가a.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 <u>나</u> 이까	(개역)	
나a.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 <u>나</u> 이까	(개역 개정)	
다a.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어기 <u>느</u> 니까.	(표준 새번역)

(11A)의 각 행의 b들

가b. ( )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 <u>나</u> 이다.	(개역)
나b. ( )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 <u>나</u> 이다.	(개역 개정)
다b. 그들은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u>않</u> 습니다.	(표준 새번역)

(1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예문 구조들에는, 문 구조들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본다. 차이점에는 밑줄을 쳐 놓았다.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문 구조의 한 부분을 이룬 서술어절의 서술어-어간 동사의 통솔 아래에 있는 [주어절-부사어-피사어절]의 연결 형식이다. 이를 연결 형식의 구성 공식으로 적으면, [자 ㅁ를]과 같다.

차이점은, 예문 구조들을 잘 살펴 보면, 서술 동사절의 어간에 첨가한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드러내는 접미사들에다가, 밑줄을 쳐 놓았다.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접미사들을 한데 모아서, 일람표를 만들어 보면, (14)와 같다.

(14) 동사절에 분포하는 접미사(열)들이 드러내는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

표현\표현 형식\양식	공손체	정식체
평서법	-(되)나이다	-되니다
문의법	-(되)나이까	-되니까

위의 (14)를 보면, 하나의 접미사열을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의 두 가지 면으로 살펴 볼 수 있음을 곧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고서 보면, 표현 형식이라는 것은, 흔히, 문법가들이 통어 범주로 다루어 오는 서법 modality/mood-평서법, 문의법을 말하고, 표현 양식이라는 것은, 문인들이 흔히 쓰는 문체 speech style-공손체, 정식체를 말한다.

위에서와 같이, 예문 구조에 분포하는 접미사 몇만 가지고 보아도, 한국어의 문 구조에서, 서술어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접미사들의 용법이 뚜렷이 보이는데, 현대 한국어의 문 구조에 쓰이는 접미사(열)을 모두 다 한데 보아서, 일람표를 작성하여 놓고서 보면, 그 용법-서법이 표현 형식임과 문체가 표현 양식임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서법으로 쓰는 접미사(열)을 모두 집합하여서, 일람표를 만들어 본다.

(15) 동사절에 분포하는 서법과 문체로 쓰이는 접미사(열)의 구성 방식:

표현\표현 형식\양식	공손체	정식체	정식체의 친교체	중간체	평교체	평교체의 친교체
평서법	-나이다	-되니다	-오/-아요	-네	-ㄴ다	-아
문의법	-나이까	-되니까	-오/-아요	-나	-니	-아
권유법	-사이다	-되시다	-오/-아요	-세	-자	-아
명령법	-소서	-되시오	-오/-아요	-게	-라	-아
준비 등분	< >	<극중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말>

이 일람표를 보면, 직감할 수 있는 것은, 동사절의 어간 동사에 첨가하는 <하나의 접미사(열)>을 <두 가지 다른 관점>으로 살펴 볼 수 있음이다.

좌편 구석에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접미사(열)을 구분하여 보는 관점에, 1) 서법의 표현 형식과 2) 문체의 표현 양식의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접미사나, 하나의 접미사열을 서법 범주로 보아서 살펴 보면, 네 가지의 표현 형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동일한 접미사나, 접미사열을 문체로 보아서 살펴 보면, 현대어에는, 여섯 가지의 표현 양식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법으로 나타나는 표현 형식에는, 1) 평서법, 2) 문의법, 3) 권유법, 4)명령법, 5)

감탄법,들이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갖출 형식을 다 갖춘 형식은 감탄법을 제외한 네 가지 형식이다.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문체에는, 1) 정식체 正式體, 2) 정식체의 친교체 親敎體, 3) 중간체 中間體, 4) 평교체 平交體, 5) 평교의 친교체의 다섯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표현 양식으로 나타나는 문체/어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놓고서 보면, 문체에는, 정식체와 평교체가 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체 中間體가 있다.<sup>23)</sup> 정식체와 평교체에는, 각각, 그 하위 양식으로 친교체가 있다.

친교체들의 특징은, 서법의 하위 분류, 곧, 평서법, 문의법, 권유법, 명령법으로 쓰는 접미사의 형태가 다 동일함이다. 다시 말하면, 친교체에 쓰는 접미사의 형태는 하나인데, 네 가지의 서법에서는 이 하나를 통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동일한 접미사를 네 가지의 서법-표현 형식으로 쓰면, 그 의미는 어떻게 분화하는가. 그런 의미 분화의 실상을 언어학적으로 보이려고 하면, 발화문 구조에다가는 상가 음운 上加 音韻을 상가 上加 엮힘-함으로 서법의 의미를 분별한다. 그것은 상가 음운열의 구성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텍스트에서는, 그 글줄의 문맥을 따라서, 그 서법의 의미를 분화하여 본다.

정식체에서는, 그 서법에 알맞는 표현 형식을 선택하여서 쓴다. 곧, 발화인은 서법 접미사, 곧, [-다, -니, -자, -라] 중에서, 그 발화문 구조에 적합한 것 하나를 골라서 쓴다. 이것은, 대화인들이 서로 상대인에게 대하여서, 말로 정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표출하는 말의 형식이다. 이 서법 접미사열은, 형태소 셋씩을 배합하여서 이룬 것인데, 그 접미사들의 배합법을 놓고서는 (12)를 보면, 그 접미사들이 속하여 있는 범주와 그들이 표출하는 기본 의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평교체는, 그 서법 접미사의 형태가 짧다. 곧, [-다, -니, -자, -라]로서, 대화인들, 곧, 발화인과 응답인은 서로 상대인에게 대하여서, 평교간 平交間이므로, 그 하는말에 특별한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러하므로, 이들은 모두 종결 접미사에 속한 형태소 하나로 종결 접미사로 삼는다.

친교체에는 두 가지의 하위 친교체가 있음을 본다. 그 하나는 ‘평교체의 친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체의 친교체’다. 이 두 가지 친교체에도, 서법의 하위 분류

23) 중간체라고 하는 것도, 대화하는 사람 사이를 상대적으로 보면, 정식체의 하상위 분류 - 곧, 하위 분류의 상위로 분류-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 있는 네 가지 범주 -평서법, 문의법, 권유법, 명령법가 있는데, 그 범주에 들어서는 형태소는 모두 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정식체의 친교체로는 종결 접미사열 [-아요]를 쓰고, 평교체의 친교체로는 [-아]를 쓴다. [-아요]는 [-아]에 연화 접미사軟化 接尾辭 softener {-요}를 부가하여서 이룬다. 이것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언어 표현에서도, 예법을 줄여서, 하나로 통일하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이런 점은 한국어의 표현 형식의 특징 중의 하나다.

정식체의 친교체로 쓰는 접미사에는 {-아요} 말고도, {-오}가 있다. 이것은 현대어에서도, 장년층 이상 되는 이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젊거나, 사회적 지위가 아래인 사람을 대하여서 쓰는 화체/말체다. 그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이것도 위에서 말한 {-아요}와 같이, 종결 접미사의 형태는 동일하다. 이것이 발화문 구조의 서술 동사에 종결 접미사로 첨가하면, 그 서술어절에 상가하는 상가 음운으로 그 의미를 분화한다.<sup>24)</sup> 발화에 들어설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글로 적은 것에, 이 {-오}가 나타나면, 문맥으로 살펴 본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문 구조에 들어서는 접미사나, 접미사열은 표현 형식 소성과 표현 양식 소성을 상승相乘한 결실로 이룬다,는 결론을 얻는다. 곧, 접미사(열)의 구성을 <접미사(열) → [표현 형식 x 표현 양식]>와 같은 공식으로 적을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대인을 만나서 하는 말은 상대적인에게 말로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갖추을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의 상승체>로 이룬다,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여 볼 점은, 이런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보는 학자 관점의 현대화 문제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 점을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 1) 그 하나는 구어와 문어,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대립 관념(?)이고,
- 2) 다른 하나는 존칭과 비칭의 대립 관념으로 말의 등분을 매김이다.

1)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경험을 그대로 말한다. 나는 말로 하거나, 글로 쓸 때에, 구어체가 따로 있고, 문어체가 따로 있다는 관념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아서, 정식체로 말할 때도 있으며, 평교체의 친교체로 말할 때도 있다. 다른 체들도 마찬가지다. 또, 글로 쓸 때도 그렇다. 때로는 중간체로 글을 써서 발표한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논문의 문체도 평교체로 쓰고 있다. 그것은, 독자와 나

24) 상기 음운에 관하여서는 필자의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를 보아 주시기 바람. 또한 필자, (1990), 「한국어 구조론 연구」, -음운 및 음운 배합론- 탑 출판사, 서울. pp.37-43,193-199.

사이에는, 상대적인 준비의 대립이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서다. 나이가 나보다 어린 학생이 나의 연구실로 찾아와도, 나는 그 학생에게 정식체를 써서 말함이 보통이요, 좀 친하여지면, 정식체의 친교체를 바꿔서 쓴다. 그러나,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평교체의 친교체까지 쓴다. 글로 적어서 소식을 전할 때에도, 꼭 같은 방식으로 상대인을 대하여서, 문체를 정하여서 쓴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는 문어와 구어, 문어체와 구어체가 따로 없다. 나는 그때그때 상대인을 보는 나의 관점을 따라서, 적절한 문체나 화체를 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평교체는 문어체도 되고, 구어체도 되며, 정식체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또, 오래 전서부터 그렇게 적기도 하고, 말로 하기도 하였다. 문체가 다 그러하다.

그리고, 2)에 대하여서는, 이미 오래 전서부터 말의 등분을 세우면서, 준비 등분으로, 극존칭, 보통존칭, 보통비칭, 극비칭, 반어(반말), 등을 말하여 왔다. 나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서 교실에서 가르쳐 보았다. 그런데, 그런 교실에서는, 지금도 말하기가 어려운 꽤 많은 에피소드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문법 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말의 준비의 등분>을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데, 상대 이론에 입각하여서, 문체와 화체를, 대화하는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상대적 상관 관계성으로 잘 살펴 보면서, 그 대화에 나타는 발화-응답문 구조를 잘 분석하여 보면, 그 ‘말의 등분’이라는 것은 ‘등분’으로 다루지 말고, 현대 언어학적 이론대로 표현 양식-곧, 문체-으로 받아 주는 것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평등하다는 마음 가짐으로 대화를 하고 있음에,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발화인이 자기가 그 어떤 문형을 가지고 대화를 하든지, 독선적인 어투로 사람을 대하면, 어느 누구에게서나 좋지 않은 인상을 받게 된다.

가령, 내가 ‘ . . . . . -입니다.’로 말을 하였다고 하여서,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을, 내가 높이 보는 것이 아니며, 내가 ‘ . . . . . -니다.’라고 하여서, 내가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글로 적어도 마찬가지다. 그 역으로 적어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대인을 대할 때에, <내가 상대인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을 언어로 어떻게 표출하는가>, 함이 문제다. 곧, 그 사람에게, 내가 갖추어 예절과 이에 알맞는 어법을 갖추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쓸 필요가 있으면, 나는 서슴치 않고, 갖춘 화체/문체로 나의 의사와 정을 표출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흔히, 발화인의 한 쪽을 중심으로 하여서, 곧, 자기의 나이, 신분, 처지, 사회적 지위, 등등으로, 말법을 세우고, 대화법에 이론에도 맞지 않는 준비의 논리를 세우면서, 존대어와 하대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 시대는 가고, 또 하나의 다른 시대가 이르렀다. 사람의 인권은 다 평등한데, 대화인 사이에, 무슨 존비의 등분이 있어서, 존칭어가 있고, 비칭어가 있겠는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서, 공존하여 살면서, 서로가 상대인의 인격을 존중하므로, 발화인이 상대인에게 갖추어야 할 예절을 화법으로 갖춘다. 그 예절을 말의 표출 양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문체-말체일진대, 그런 표현 양식에다가, 어떻게, 사람에게 존·비칭을 매겨 가면서, 지어 먹은 관념으로 말의 등분을 매겨 가겠는가.

발화인이 대화 상대인에게, 스스로 갖추어야 할 말과 글의 예법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적인 표현 양식으로 살펴 보면, 관념적인 어법 범주라는 것은 사라지고, 대화의 실상을 언어 표출면에서 찾아내어서, 하나의 형식과 양식 체계로 이론화, 구조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런 현대인의 상대적인 안목으로 보는 화법을 기초로 하여서, 표현 형식과 표현 양식을 상승하여서 얻은 문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는 지난 반 세기 동안에 언어학 이론이 상당히 발전하였음을 본다. 따라서 언어 분석 이론도 실용성이 있는 수준에 올라 있다. 과거에 정설처럼 되어 있는 이론도 재음미하여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안다.

우리는, 이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화 분석 discourse analysis 방식으로 재분석 재음미하여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문체와 화체, 표현 양식과 표현 양식, 존대와 하대에 관한 관념적 통어 규칙들을 재구하여 볼 아량을 지녀야 하겠다. 그리하여서, 현대의 한국어 구조의 실상을 확실히 파악하고, 거기에서 세울 수 있는 가능한 어법 이론을 세우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론으로 우리의 발을 옮겨 가야 하겠다. 이는 시대적 현실이고, 시대적 요구이고, 자라나는 어린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소망의 실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체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까, 함을 지금까지 한국어로 번역한 <시편 제일 편>을 예로 들어 본다.

#### (16) 가. 시편 제일 권 1

<이것은 시로 읊었으며, 산문 형식으로 적은 것임>

복이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의론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

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은 비하건대 잔잔한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무릇 그 행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런고로 악한 자들이 심판할 때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서지 못하리로다 대개 여호와—의인의 길을 아시나니 오직 악한 자의 길이 망하리로다

- 관주 성경전서, 대영 성서공회 발행 1926. - 맞춤법만은 현행대로 함.

나. 시편 제1 권 1

<이것은 산문 형식에서 표현 형식을 바꿔서 번역문을 만든 것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 성서공회 발행 1956.

다. 시편 제1편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결의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며  
그분의 가르치심을 낮과 밤으로 되세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어져  
제때에 열매를 내어 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을 거두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도다!

오히려 바람에 흩어버리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감히 서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심판 때에,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왜냐 하면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로다.

- 구약성서 새 번역 1 시편, 임승필 역,  
 (카톨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1992.

라. 시편 제1권 1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갓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얼굴을 들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서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199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의 시편 번역인들은 시편을 번역할 때에, 일정한 문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직감한다. 위의 번역문 중에, (가)의 시편은, 일반 서적을 출판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편을 산문체 형식으로 판을 짠 것이지만, 그 시편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시적인 운과 리듬이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나) 이하의 번역 시편들의 표현 형식은 현대의 시문 형식을 따라서, 글줄을 현대화하여서 적은 것들이다. 이들을 여기에 옮겨 적는 것은, 이 번역문들이 모두 일정한 문

체를 지니고 있음을 비교하여 보려고 함에서다.

(가)에서 (다)에 이르는 시편들은 ‘개역 성경’에서 채택하여 쓴 ‘공손체’로 번역한 것이고, 특히, (라)의 번역문은 번역 처음으로부터 ‘현대어로서, 현대 시의 표현양식’을 갖춘 문체로 번역 시편을 정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문에서 구두점을 찍어 가면서 읽은 것은 (다)에서 비롯하여서, (라)에 이르러서는, 낭독자가 주어와 서술어의 상관 관계를 운향 韻響을 돋우어 가면서, 읽기 쉽게 하였음을 볼 수 있다. 구두점 찍기도 어법의 일종이다.

그러면, 어린이를 위한 성경 말씀으로 이 시편을 번역하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것은 역시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쓰는 말로 문형을 짜고, 어휘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안다.

### 3.3. 성경 번역문 하나에서는, 능동문 구조와 수동문 구조를 혼용하지 말자.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담화문 구조 하나에서, 능동문 구조와 수동문 구조로 된 문체 섞어서 쓰면,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은 책을 읽는 사람의 사고 과정에 혼란을 불러 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가령, 마태 복음서 3:9-10을 예로 든다.

(17) 가. <sup>8</sup> . . . . .

<sup>9</sup>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sup>10</sup>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개역개정)

나. “. . . . .

<sup>9</sup>너희끼리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다’는 말은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사실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하느님은 이 돌로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

<sup>10</sup>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200주년 신약 성서)

다. <sup>8</sup> . . . . .

<sup>9</sup>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

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sup>10</sup>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표준 새번역)

이 성경 말씀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능동문 구조로 구성한 말로 시작하여서, 수동문 구조로 구성한 말로 끝을 맺었다. 이런 때에는, 문 구조에 분포한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서, 말을 주고 받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 닿는지를 잘 알 수 없게 된다. 발화문 text 하나에서, 주어는,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한 주어가 문장 구조 처음에서 비롯하여서,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주어로 있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능동문의 주어는 언제나 능동문 구조의 주어로 주어의 위치에 있어야만, 독자의 사고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능동문 구조의 주어-동작주어, 피동문 구조에서는 피사어-목적어-피동작주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문장에서, 어떤 사역자가 주어로 등장하면, 그 문장을 마칠 때까지 주어로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 성경 절수로 말하여서, 두 절 이상이 되더라도, 주어로 등장한 사역인은 끝까지 사역인으로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야, 독자가 그 말의 줄거리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곧,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하나의 텍스트에서 주어가 피사어로 넘나드는 번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유로 하여서, 위에 예로 든 표준 새번역의 문 구절을 다음과 같이 다시 번역하면, 어떨까.

(18) <sup>9</sup>“너희는 주제 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sup>10</sup>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으셨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으셔서, 불속으로 던지실 것이다.”

위의 예문은, 요한이 자기의 말을 들으러 오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에게 한 말임을 우리는 다 안다.

우리는 그 원전의 문 구조를 (18)에서와 같이 번역하여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믿음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10절의 말씀이 9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고서,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텍스트-문장이 여러 개의 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텍스트에 나오는 주어-동작주는, 그 텍스트의 어디에서나 끝까지 주어-동작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 3.4. 어휘

일반 언어학에서 쓰는 용어로 ‘어휘’라고 하면, 두 가지 면으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전류에 올라 있는 단어들을 어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어떤 공동체에서 쓰는 단어들이거나,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 영역에서 쓰는 단어의 총체를 어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늘 쓰는 어휘를 일러서, 이를 어휘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어휘수가 얼마나 되며, 그 어휘가 신도들의 마음에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일까, 함을 다져 본 일이 없는 줄 안다.

헬라이어 신약 성경에 나온 어휘 수는 ‘헬라이어-영어 사전’을 보면, 대략 7,500에서 8,000 정도일 것으로 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우리말 신약전서에 나오는 어휘의 수를 세어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휘들이 신도의 생활어나, 공동체에서의 활동 영역에서 늘 쓰는 어휘들인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어린이 가운데서, 기독교 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가 알고 쓰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하여 가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쓰는 어휘의 수와, 어린이의 지적 발전을 따라서, 그런 어휘수가 얼마나 어떻게 증가하는 지도 모른다.

참고로,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교원 대학원에서 쓰는 언어 교육 이론서에 올라 있는 것을, 옮겨 적어 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서, 여기에 옮겨 적는다. 이것은 어린이의 성장 과정과 지적 발전 과정을 따라서, 어휘의 수도 증가하여 감을 설명하는 글에서 얻은 자료다. 그런데, 이것은, 필자가 그 책을 읽고서, 나의 비망록에 참고로 기록하여 둔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 책의 저자가 누구였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함이 유감이다. - 그 책을 뉴욕 집에 남겨 두었음.

#### (19) 어린이의 성장과 어휘의 발전도

출생후 성장도	사용 어휘수	비고
12개월	3 단어	1 단어로 외마디 말을 한다.
18	25 - 30	
2살	275 - 300	두 세 단어로 문장을 만든다.
3	900 - 1,000	30%는 고쳐서 말한다.
4살	1,500	대화에서 ‘나’와 ‘너’의 용법을 안다.

5	2,200 - 2,200	
6	2,500	문답을 비교적 잘 한다.
10	5,400	
12	7,200	말로 쓰는 단어수는 2,500- 3,00인데, 알고 있는 단어수는 그 3배다.
대학생	12,000	

우리에게도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어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진 나라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어휘의 사용 빈도수까지 통계를 내어서 발표하고, 이를 생활 교육에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언어 사전’까지 편저하여 놓았음을 본다. Thorndike's Dictionary와 같은 책에는, 올림말에다가 빈도수 1,000을 단위로 하여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수를 가진 단어에 첨자로 빈도수의 수순대로 숫자를 적어 놓았음을 본다. 그것은, 어떤 단어가 교육 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라는 것을 알려 준다. 이런 연구 결과를 교육에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견주어서,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어휘수와,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공동체나 지역 사회에서, 흔히 쓰는 어휘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함을 언제인가는 재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어휘나, 남들이 알고 있는 어휘는, 그 수가 비슷하겠지마는, 그래도, 교회 학교 교육의 효과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고 쓸 수 있는 힘을 길러 줌에, 어떤 어휘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함을 알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다.

제일 급한 것은, 성경에 나온 어휘와 가정과 학교 교육의 장에서 쓰는 어휘들을 수집 정리하여서, 통계 숫자로 그 빈도수를 표시하여 주는 일이 긴요할 것 같다.

특히, 기독교 교육을 맡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쓰는 기본 어휘를 조사 연구하고, 그 어휘에 알맞는 뜻매김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하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린이를 위한 성경책의 첫 머리는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20) 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개역)
-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표준 새번역)
-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시안)

#### 4. 화법으로 나타나는 문체에 관한 문제

어린이가 읽을 성경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연구하여 볼 일은, 성경에 나오는 발화인이 상대인이나 응답인에게 표출하는 문 구조의 기본 유형이다. 이 유형은 어린이가 읽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로 우리에게, 우리 어린이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문형과 어떤 표현 양식과 어떤 표현 형식으로 말씀을 하실까.

바울 선생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국어로 적어서 보낸다,고 하면, 어떤 문체로 편지를 쓸 것인가, 함을 신학적으로도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지마는, 언어-사회학, 언어-심리학, 언어 문화학적인 연구도 하여 보아야 할 것 같다.

성경책에는, 수 많은 예언과 대화가 들어 있고, 그리고, 수 많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글로 새로 적으려고 하면, 어떤 표현 형식과 어떤 표현 양식을 가진 문형과 문체로 적을까, 함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 5. 결론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 사업에서는, 100년 넘게, 알면서도 그대로 넘어가 버린 시기를 재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하여 내려고 하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연구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 곧 하여야 할 일이면, 곧 바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바른 문법 구조로 이룬 문형과, 아름다운 문체와, 정확한 개념을 지닌 어휘를 써서, 성경 말씀을 원전에서 직접 번역하여 줌으로, 어린이들도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여린 마음이지만,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달아오르는 믿음과, 바른 사고 방식과, 뜨거워 가고 깊어 가는 믿음을 스스로 깨달으며, 그 믿는 바를 삶으로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군이 되게 하는 바탕을 마련하여 주어야 한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말로 번역한 이 새로운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알고 써야 할 어휘수를 늘려가서, 이 어지러운 사회에서, 폭넓은

어휘를 쓸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어야 한다.

어린이 성경 번역에서는, 능동문과 수동문 구조를 일관성 있게 사용함으로, 어린이들이 성경에서 전개되는 장면 하나하나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고, 그 역사하심에 부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역사하심에 쓰임을 받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이루어 주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그런 성경 번역문을 읽음으로, 어린이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 마음에 담고서, 한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동역하는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어야 한다.

정연한 문법과 정아한 문체로 번역한 성경 말씀을 대하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국사람다운 정확한 논리 체계와 훈훈한 정서를 마음에 담고서, 생각하느니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말하느니 말씀을 풍기는 사람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말씀으로 닦을 수 있게 하여 주어야 한다. 이런 점은 아는 사람에게 맡겨 주신 아버지의 뜻일 것이다.

어린이들이 읽어 가는 새로 번역한 성경 말씀은 바른 한국어로 이룬 것이므로, 어린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바른 한국어를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라도 속히 가슴에 안겨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가능한 노력과 정성을, 어린이를 위한 성경 번역에 쏟아 주시기를 간청한다.

## 참고한 책과 논문

- 대영성서공회. (1926), 「선한문 성경전서」  
대한 성서공회. (1956) 「관주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대한 성서공회. (1993)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  
임 승필 번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1992) 「시편」, 구약성서 새번역 1, 한국 천  
주교중앙협의회  
Nestle-Aland.(1993), *Novum Testamentum Graece*, 27th edition,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rt..  
송 석중 (1993), 「한국어 문법의 새 조명, 통사 구조와 의미 해석」, 지식 산업사,  
서울.  
박 창해 (2000예정),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인쇄 준비중).
- Alter, Robert. (1981), *The Art of Biblical Narrative: A Litteray Approach to the  
Bible*, New York: The Bsic Books.  
Cunningham, J.V. (1969), *The Problem of Style*, (ed), Greenwich, Connecticut.  
Chomsky, Noam. (1968), *Language and Mind*, Harcourt, Brace, Jovanovich.  
Chomsky, Noam. (1971),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n Stein-berg and Jacobovits (eds.) pp.199-207.  
Hockett, Chares F. (1968), *The State of Art*, Mouton, The Hague.  
Ivic, Milka. (1965), *Trends in Linguistics*, Mouton, The Hague.  
Jakobson, Roman. (1987), *Language in Literature*, ed. by Krystyna Pomorska,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Nida, Eugene A. (1975), *Language Structure and Transl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J. Brill.  
Nida, Eugene A. (1984), *Signs, Sense, Translation*, Bible Society of South Africa,  
Cape Town.  
Nida, Eugene A. and Taber, Charles R. (1982), *Theory and Practice on Translation*,  
The United Bible Society. Leiden, E. J. Brill  
Paine, Stephen W. (1961), *Beginning Greek, A Functional Approa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ark, Chang-Hai. (1974), *Thought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 Korean Studies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Riffaterre, Michael. (1959), *Criteria for Style Analysis*, Word, XV

Riffaterre, Michael. (1964), *The Stylistic Function*, in Ninth Congress Papers, pp. 316-322.

Riffaterre, Michael. (1971), *Essais de stylistique structurale*, Paris, Flammarion.

Smith, Neil and Wilson Deirdre. (1980), *Modern Linguistics, The Results of Chomsky's Revolu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Winograd, Terry. (1983), *Language as a Cognitive Process, Vol. 1: Syntax*,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Inc. Massachusetts.

Waard, Jan de and Nida, Eugene A. (1986), *From One Language to Another*, New York.